

삼성정밀화학, 울산공장 화재 발생

열병합시설 내 탈황설비 소실 ... 정기보수 기간 중 인명피해 없어

삼성정밀화학 울산공장 열병합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과 인근 기업의 진화대가 출동해 50여분 만에 불을 꺾었다.

3월12일 오후 3시17분경 울산공장 열병합보일러의 20m 높이의 탈황설비에 불이 나 완전히 소실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화재 발생 당시 탈황설비는 전기장치 보수작업을 위해 전원을 끈 상태였으며 용접작업 도중 불씨가 인화성 물질에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.

한편,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 주변으로 불꽃과 함께 피어오른 유독한 연기가 인근 도심과 주택가까지 날아들어 소방당국에 주민들의 신고전화가 빗발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.

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.
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3/12>